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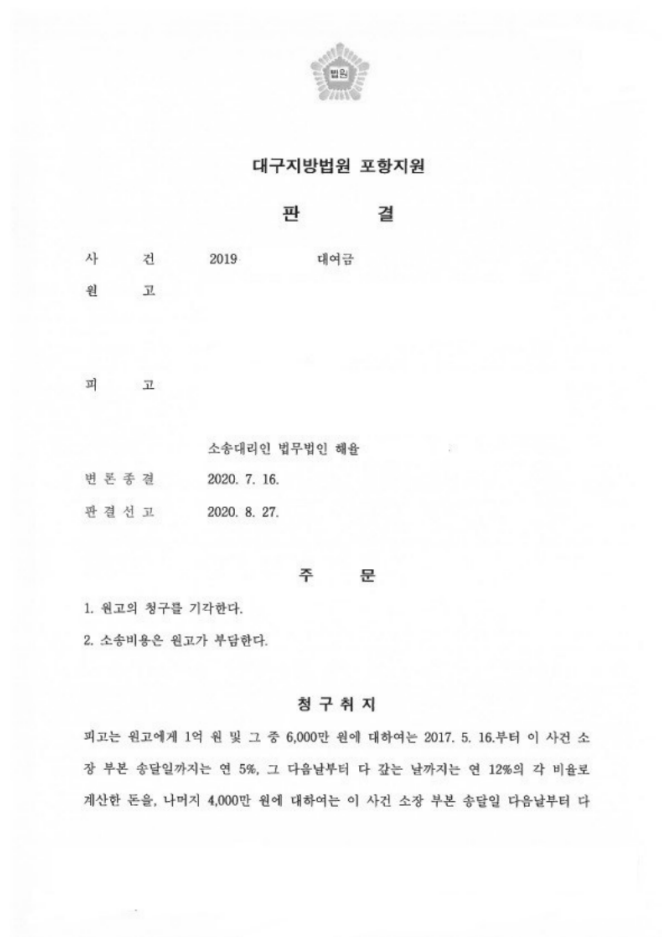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빌려줬다는 문서는 있는데 송금은 없다면, 돈이 오간 사실부터 확인하다.

1억 원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전부 방어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 대여금 청구 방어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상대방은 차용증을 근거로 1억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대여를 뒷받침할 자료가 문제 되었습니다. 서명과 인장 경위뿐 아니라 금전 지급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 해율은 청구 전부를 막았으며, 이번 콘텐츠는 문서 주장과 실제 자금 이동의 대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에 적힌 내용과 실제 거래 사이의 간격을 살피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문서라면, 문서의 외형에 압도되기보다 작성 경위와 자금 이동, 날인에 사용된 인장 등을 나누어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율은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문서가 의뢰인의 채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였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차용증의 진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조다”라는 주장보다 서로 맞지 않는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이 직접 도장을 찍었는지 불분명하고 서명이 없다는 점, 차용증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인장이 사용된 경위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관련 인장이 이미 두 차례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인감이 찍혀 있다는 사정을 다른 자료와 함께 살폈습니다. 각각의 의문을 따로 나열하기보다 문서의 작성 시점과 날인 경위, 실제 대여 여부가 하나의 설명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응의 핵심

문서에 적힌 액수보다, 실제 돈이 오갔는지가 먼저입니다.

문서에 적힌 액수보다, 실제 돈이 오갔는지가 먼저입니다.

차용증을 내민 상대방의 1억 원 청구. 해율은 전부 막았습니다.

- 차용증만 내밀고 실제 송금 자료는 없다면?
- 받은 적 없는 돈을 갚으라는 소장이 왔다면?
- 문서와 계좌 내역이 맞지 않는 대여금 분쟁이라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차용증의 작성과 날인에 관한 정황, 금융거래 자료, 인장 변경 내역 등 문서의 신빙성을 흔드는 간접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구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실이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직접적인 위조 장면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 정황을 연결하여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는 문서뿐 아니라 거래의 경위가 뒤따릅니다. 해율은 상대방이 내세운 차용증과 객관적 사정이 맞물리는지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채무를 소송에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바꾸어 제시한 사례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1억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를 방어하였습니다. 큰 금액이 적힌 차용증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문서의 존재와 문서의 증명력을 구분한 접근입니다. 서명·날인·금융거래·인장 사용 경위를 연결하면 처음에는 막막해 보이던 분쟁에서도 다툼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의 설명을 따라가기 전에, 문서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의 핵심

차용증을 내민 상대방의 1억 원 청구. 해율은 전부 막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차용증을 내민 상대방의 1억 원 청구. 해율은 전부 막았습니다.

-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받은 계좌 내역이 없다면?
- 이미 바꾼 도장이 오래된 문서에 찍혀 있다면?
- 위조가 의심되는 차용증을 어떻게 다룰지 막막하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